

“여성도 차별없이 영화 만드는 세상 돼야”

14~18일 문화전당 등서 광주여성영화제
허지은·김소영 감독, 김채희 위원장 대담



9회를 맞는 광주여성영화제와 협업한 감독들은 앞으로 여성영화제가 ‘여성 차별과 소외 없이 영화를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길 주문했다. 왼쪽부터 김소영·허지은 감독, 김채희 집행위원장.

오는 14~18일 9번째 행사를 여는 광주여성영화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통해 여성영화 제작을 돕고 있다. 지난해 여성영화제와 함께 단편 ‘돌아가는 길’을 만든 허지은(31) 감독은 인천·대구여성영화제 등에 초청되고 그의 후속작 ‘신기록’은 오는 23일 열리는 39회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 후보로 올랐다. 올해 폐막작으로 선정된 ‘엄마가 60살이 되기 전에’로 처음 메가폰을 잡은 김소영(28) 감독은 세심한 연출력으로 지역 영화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11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커피숍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다지고 있는 허 감독과 첫발을 내디딘 김 감독, 그리고 김채희(45)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만났다. 20·30·40대 ‘여성’ 영화인으로서 이들이 나눈 대화는 영화제에서 지역 영화계의 현 주사로 변하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다.

▲김채희=올해 광주여성영화제는 여성 감독과 협업해 세 번째 영화를 만들어냈다. 지난 2010년 영화제를 시작하고 3회까지는 상영할 만한 지역 여성 영화를 찾기 어려웠다. 발품을 팔아다가 광주 곳곳의 여성 영화인 21명을 만나 네트워크를 만들었지만 이 중 감독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여성영화제는 여성 감독에게 이른바 ‘특혜’를 주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출 기회에서 밀려나야 했던 ‘유리천장’을 걷어내고 싶었다.

▲김소영=나는 광주여성영화제와 함께 성장했다. 4회부터 영화제 홍보 업무를 맡다가 7회 때는 영화제 예고편을 찍고 지난해에는 허 감독의 영화 조연출로 활동했다. 연출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여성영화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여성영화제는 시나리오를 고치지 말자는 내 요구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허지은=광주여성영화제가 지원한 600만원은

매년 1편씩 영화 제작 지원·상영
비정규직·중년의 엄마 등 주제 다뤄
여성 이유 연출 기회 안 밀려났으면
여성영화인 네트워크 정기화 계획

정말 요긴했다. 감독이 촬영 현장에서 ‘돈 걱정’ 안하는 것 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광주는 연출·촬영 인력과 배우가 부족해서 서울까지 가서 스태프를 찾아야 한다. 여성영화제는 30대 여성 감독의 좁은 인맥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인력을 마련해줬다. 경험이 풍부한 촬영감독과 제작자가 합류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다.

요즘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장편은 안 만드느냐’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문제는 돈이다. 광주에서 지원하는 최고금액인 1000만원은 단편을 만드는데도 빠듯하다.

▲김소영=영화를 완성한 뒤 든 생각은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였다. 이번 촬영 현장은 ‘잘 차려진 밥상’ 같았지만 실제 지역영화계는 판판이다. 독립영화에 대한 광주시 지원책은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져있다. ‘영화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가 우선이다.

▲김채희=광주여성영화제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세 편의 영화를 만들었지만 모두 개막작에 오를 만큼 긴 분량은 아니었다. 여성영화제는 여성 감독이 설 자리를 넓히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지원금을 늘릴 수 있을지, 이상적인 지원금 배분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다행히 여성영화제가 발굴한 영화들이 공동체 상영회에 초청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생기고 있다. 영화제 기간인 17일 밤 9시 ‘여성영화인의 밤’을 연다. 이 자리를 통해 여성영화제는 지역 여성영화인들의 네트워크를 정기화하고 1년 앞으로 다가온 여성영화제 10주년을 준비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리·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9회 광주여성영화제 국내외 42편 상영 전시·토크 콘서트 등 부대행사도 다양

9회를 맞는 광주여성영화제가 오는 14~18일 5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와 광주독립영화관GIFT에서 펼쳐진다.

‘이제 우리가 말한다’를 주제로 내건 이번 영화제에서는 장편 14·단편 28편 등 총 42편의 국내외 영화가 상영되고 전시·토크 콘서트 등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영화제 첫날인 14일 오후 7시 개막식 뒤 상영되는 개막작은 디지털성폭력을 다룬 이선희 감독의 다큐멘터리 ‘얼굴, 그 맞은편’ (2018)이다. 상영 뒤에는 이선희 감독과 리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과의 대화를 나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밤의 문이 열린다’ (유은정), ‘졸업’ (허지은) 등 여성 감독들의 다양한 데뷔작을 만날 수 있다. 국군광주병원 등을 배경으로 한 모현신 감독의 ‘국광교회’와 발달장애인 동생과 함께 보낸 시절 밖 400일의 일상을 그린 ‘어른이 되면’도 기대작이다.

17일 오후 4시에는 광주독립영화관에서 토크콘서트 ‘이제 우리가 말한다’가 열린다. 이현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정미경 작가, 장서진 감독이 참여한다. 16일에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중년 여성을 그린 일본 영화 ‘오루시!’ 상영 뒤 소설가 이화경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날 김채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



9회 광주여성영화제 폐막작인 김소영 감독 작품 ‘엄마가 60살이 되기 전에’.

장과 ‘소공녀’를 함께 보고 씨네페티프를 진행한다.

누벨바그의 거장 아녜스 바르다와 그래픽티 아티스트 JR의 프랑스 추측 여행기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과 미국에서 벌어진 낙태반대운동의 소재로 한 ‘날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중국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등 업선된 해외 영화들도 선보인다.

18일 오후 5시에는 고요한 감독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김소영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엄마가 60살이 되기 전에’ 상영을 끝으로 영화제를 마무리한다. 전편 무료 관람. 문의 062-515-6560, cafe.daum.net/wffig.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폐막 직후 기념촬영을 한 국내의 작가들. <아시아문화전당 제공>

“광주가 아시아 평화 위한 문학적 플랫폼 역할해야”

아시아문학페스티벌 폐막
홍보 미흡 시민들 참여 저조

“아시아 각국은 서로 다른 형식과 전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문학과 문화가 가진 이러한 다양성은 충분하고도 공정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세계의 양식있는 시민들이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것처럼 아시아의 문학과 문화에도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객관하게 해주는 공정한 교류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시아에서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2018광주작가 선언문’을 채택하고 지난 9일 막을 내렸다.

2018광주작가선언문에서 작가들은 “광주의 지역과 상처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며 “광주가 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의 출발점이 되고 평화를 위한 문학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아시아문화전당이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평화를 향한 여러 갈래길’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작가 포럼이 진행됐다.

중국 소설가 연젠커와 소설가 심운경, 미얀마 시인 틱사 니와 이영진 시인, 몽골 시인이자 제1

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인 담딘수렌 우리양카이와 이영산 작가가 대담을 나눴다.

이후 국제회의실에서는 작가 대담-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가 펼쳐졌다. 나희덕 시인의 사회와 문태준 시인의 진행으로 참석한 외국 작가들, 국내 작가들과 함께 평화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가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번 페스티벌은 비엔날레 기간에 진행됐지만 홍보 미흡 등으로 전반적으로 시민들과 지역 작가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제1회 대회 때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엘레 소잉카 등 세계거장들의 참여로 관심이 높았지만, 이번에는 지명도 있는 세계적인 작가의 참여가 없어 관심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앞에 설치된 아시아문학촌에서 진행된 시민들의 5행시 짓기, 학생 시민 백일장은 참여자가 거의 없어 전시성 행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행사를 안내하는 표지판도 거의 없어 외지인이나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는데 어려움도 있었다. 향후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을 지속 가능한 아시아의 문학축제로 이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알아 할 지적으로 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악뮤지컬 ‘신초영전’ 14일 5·18기념센터

국악창작뮤지컬 ‘신초영전’이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젊은 음악가로 구성된 국악 그룹 ‘각인각색’이 첫 번째 정기연주회로 여는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 ‘탄생만세 만만개’에 참여해 제작됐다. 지난 7월부터 모금을 진행해 목표액 150만원을 달성했고 문화재단의 150만원 지원금을 받아 공연을 만들 수 있었다.

심청전의 이야기를 빌린 이 작품은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둔 신초영이 꿈을 이루기까지의 고난과 극복을 그렸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 잃은 민초의 처지를 주인공이 처하는 시련에 대입했다.

유태선씨가 기획과 감독을 맡고 정일행씨가 총연출을, 윤현명씨가 음악감독을 담당했다. 한지성씨가 지휘봉을 잡고 임효원(신초영), 소지원



국악창작뮤지컬 ‘신초영전’ 연습 모습.

(신한국), 정일행(이완용)씨가 출연한다. 서주원(건반), 신희선(드럼), 이소리(해금), 이승호(대금·소금)씨가 전통국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꾸민다. 전석 2만원. 문의 010-6886-580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생명사랑 으뜸전남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 복지 실현”

궤적한 대기환경 조성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에코 푸른 숲 전남 만들기
산림 휴양복지 기반 구축

도민 제일주의 소통행정 및
민원 서비스 확대

-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
-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질개선, 상·하수도 보급, 지방 상수도 현대화
-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영산강 경관 숲, 재해방지림 및 소득 숲 조성
- 산림휴양시설 통합플랫폼 구축, 숲길 정비 및 휴양·치유벨트 조성
-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운영, 주민 맞춤형 강좌, 현장소통 간담회 추진
- 위임 민원 확대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 현장 방문 민원 처리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환경산림국)는 언제나 도민 곁에 있습니다.

동부지역본부 걸어온 길

- 2005. 10. 21. : 동부출장소 개소(1과, 3담당, 17명 / 환경 업무 일부)
- 2014. 08. 01. : 동부지역본부(환경국) 승격(3과, 11담당, 56명)
- 2018. 08. 02. : 동부지역본부 조직·기능 확대(환경산림국)
- (5과, 18팀, 1사업소, 127명 / 산림업무 이관)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 T. 061-286-7821~4